

남녘의 화진포가 전하는 겨레사랑이야기



화진포

화진포는 남강원도의 바다가 지역에는 아름다운 명소이다. 원래 이곳은 만이였었는데 모래부리에 의해 만안이 막혀서 바다자리호수가 생겨나게 되었다. 해안모래밭에는 소나무, 해당화가 퍼져있어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도 많이 찾는 여행지이다.

이 화진포지역에 일찌기 철새위인들의 겨레사랑의 기록한 발자취가 새겨져 오늘도 전해져오고 있으니 세월이 가도 겨레가 잊지 못하는 화진포의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소중한 추억은 그리움에 정비례하는 법이다. 화진포에 대한 사람들의 추억은 곧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되어 70여년전 10월의 언덕으로 이끌군 한다. 그러느라 배행된 조국땅에서 인민들 누구나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 그리도 애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위민헌신의 로고가 눈앞에 어려와 눈곱이 뜨거워지곤 하는 사람들이다.

...
주제37(1948)년 10월 17일, 금강산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마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정리를 거쳐 고성군 화진포휴양소(당시)

를 찾으셨었다. 그이를 화진포휴양소에 모시게 된 일군들의 마음은 참으로 기뻐했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수령님, 조국에 개선하시어서도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돌보시느라 로고에 로고를 바치시는 수령님이시었다.

그런데 그날은 정치좋은 곳에, 그것도 다름아닌 휴양소에 모시게 되었으니 쌓이고 쌓인 그의 피로를 덜어드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일군들은 생각하였다. 하여 수령님을 위한 휴식일정계획이 짜지게 되었고 그 차비 또한 빈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짜놓은 휴식일정이 계획으로만 끝나게 될줄 어떻게 알았으랴.

휴양소에 도착하시어 휴양소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한기에 휴양실을 몇명이나 받을수 있는가를 알아보신 때로부터 수령님께서서는 잠시도 휴식할틈을 잃으시고 사람들과 담화를 이어가시던것이었다.

산간지대의 농사를 잘 짓도록 하며 부업을 해서 수입을 높일도록 해야 한다. 이 지방에

도 많고 도토리나무도 많다고 하는데 가을에 낱자를 정해놓고 지역을 때주어 갖이나 도토리를 따게 하는것이 좋겠다. 도에서는 고등어철에 소금을 확보해두었다가 군에 보내주고 군소비조합에서는 절군 고기를 제때에 다른 지방에 공급해주어야 한다. ...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느라 시간가는줄 모르시었다.

계획된 휴식일정이 형용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와 수행성원들은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며 초조해하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를 거니시면서도 수령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휴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휴양을 더 잘 보장하겠는가 하는 생각만이 자리잡고있었다.

호수가 좋다. 소나무가 우거진 모래터가 잇닿아있어 휴양생들이 보트놀이하기에 좋다. 보트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

이렇게 하나하나 이르시고나신 수령님께서서는 휴양소장에게 당부하시었다.

호수에서 오리를 기르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휴양생들의 부식물을 보장해주어야 한

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로동정 휴양사업이다. 고기와 남새, 물고기 등 부식물을 휴양생들에게 정 상적으로 잘 공급해야 한다. 휴양소가까운 곳에 정거장을 옮겨고 도로도 건설해야 하겠다. ...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화진포인민들만이 아닌 해방된 조국땅의 모든 인민들이 있었고 수난받고 고생했던 그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을 안겨주시길 일념이 짙 차있었다.

이날 수령님을 위해 일군들이 짜놓은 휴식일정은 집행되지 못했지만 화진포인민들을 위한 수령님의 사업계획은 이렇게 집행되었다.

이것이 화진포가 간직하고있는 소중한 추억의 한토막이다.

그리고보면 화진포야말로 조국과 겨레를 위하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진실하고도 웅심깊은 사랑을 증명하는 증언자가 아니겠는가.

오늘도 남녘동포들은 해방후 철새위인들께서 여기 남녘의 화진포에 찾아오셨던 감격의 그날을 잊어 잊어 불멸의 사적물들을 정리 보관하고 길이길이 전해가고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날의 가슴뜨거운 겨레사랑의 전설들을 고이 간직하고 전해주는 귀중한

사적물들.

그 사적물 하나하나를 주의깊게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표시한 남조선주민들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화진포에 어린 수령님의 그 사랑의 발자취에서 겨레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여 불면불후의 로고를 바쳐오신 수령님의 한평생을 더듬어볼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공화국의 인민들만이 아니라 온 겨레를 한 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인민사랑, 겨레사랑을 오늘도 길이 전해가는 화진포.

하긴만 나라가 갈라져 북남의 겨레가 함께 이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온 겨레가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던 김일성주석의 녀민이 꽃필 통일 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것은 민족사의 법칙이다.

조선민족모두가 기쁨과 환희의 춤바다를 펼칠 감격의 그날에 력사의 땅 화진포는 북남의 우리 겨레를 따듯이 맞아줄것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원래 남강원도 화진포는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고기잡이도 하면서 생계나 겨우겨우 유지해오던 외진마을이었다. 그러다가 대륙침략전쟁에 완장이 된 일제가 명사십리에 군용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철거된 별장들을 그곳에 옮겨짓기 시작한 다음부터 화진포는 부자들의 유흥장으로, 집을 헐리우고 땅을 때운 사람들의 거처지로 되어버렸다.

조국이 해방된 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깊은 관심속에 일제가 도망치면서 파괴해버리고간 별장들을 개건함으로써 문화휴양지로 전변되었다.

바로 이곳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도착하신것은 주제37(1948)년 8월초 어느날이었다.

그날 저녁 고성군내 일군들이 김정숙녀사를 뵈오러 찾아왔는데 그들은 더 좋은 숙소를 마련해드리지 못한다며 대하여 몹시 송구스러워하였다.

일군들의 심중을 헤아리신 녀사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 집인가고,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 살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다음날 로송숙을 거니시던 녀사께서는 경치가 아주 좋다고, 이런 곳에서 휴식하고있는 휴양생들이 보드도 타고 장기도 놀게 하여야 한다고, 소나

무술로 오솔길을 많이 내어 유람에 편리하게 해야 하겠다 고 말씀하시면서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의 생각은 어떤가 고 물으시었다.

그는 지금은 로력이 없애고 곤란할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조용히 웃음을 지으신 녀사께서는 그 일은 휴양생들이 하루이틀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정치사업을 잘하면 따로 로력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었다.

머칠후 호수가에 나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신 그이께서는 화진포에서 5리 남짓한 곳에 있는 창평리의 한 어촌마을을 찾으시고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수수한 옷차림을 하시고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녀사께 농민들과 어민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있는 문제들을 자초지종 말씀드리었다.

이날 녀사께서는 농민들과 어민들의 생활형편과 녀맹단체들의 사업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녀성들이 봉건적인습에서 벗어나 생활도 잘 꾸리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이렇듯 화진포에서 녀사가 보내신 날들에는 은근모화가 가득찬 이 땅에서 온 겨레가 남부럽지 않게 잘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녀민이 깃들여있었다.

본사기자 김소담

어머님, 동편역사, 동편꿈의 미소

사람은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회억에 산다고 한다.

세월은 가고 백발이 오는 법이어서 내 이제는 팔순이 넘은 고령인이라 왕년의 일들이 까마득히 멀어진다.

하지만 백두산녀장군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께서 통일애국의 길에서 나의 시아버님(몽양려운형)과 시누이(려연구, 려원구)들에게 기술이신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

한대하셨다. 까마다 색다른 음식 한가지라도 더 대접하도록 마음쓰셨고 객지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이보저모로 원심을 기울이셨다.

평양에 올 적마다 어버이수령님의 맥에서 류속하면서 김정숙녀사의 후덕한 인정미에 감복하시어 아버님은 내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심정을 터놓았었다. 장군님께서

고 말하셨다.

어버이수령님을 새 조선의 령수로 신뢰하며 그이의 자주독립국가건설로선을 적극 지지하고 받든 시아버님의 당부를 따라 딸자매가 평양으로 오게 됐고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보살핌속에서 생활하며 성장하였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그때 일을 더듬으시며

가진 옷가지며 신발, 학용품과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들을 모두 챙겨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질 때에는 부디 앓지 말고 공부 잘하라고, 공부 많이 하고 돌아오면 우리 함께 손잡고 부강한 조국건설을 위해 힘껏 일해보자고 하시었다.

하지만 그들이 류학을 떠나며 본 녀사의 모습이 마치 막으로 뵈은 모습이었다.

그들이 류학하는 나날 때로는 햇살이며 고추장도 보내주시며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때로는 편지를 띄우시며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라고 신칙하시며 너희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통일이 되겠지, 그때 함께 서울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던 녀사이다.

우리 시아버님과 시누이들을 한식술처럼 대접주시며 각근한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도록 보살펴주시던 김정숙녀사께서는 주제38(1949)년 9월 22일 너무도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녀사께서 생전에 것처럼 가슴아파하신 민족분열은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나와 자손들은 지금도 김정숙녀사께서 우리일가에 계 배부신 인덕을 잊지 못하며 녀사의 녀민인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전심하고있다.

김정숙녀사의 서거 72돛에 즈음하여 절절한 경모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로현숙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주제82(1993)년 4월 어느날 미국 워싱턴 캐리태학 고려연구소 소장인 재미교포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는 세계가 《깨어져나간 지구를 맞붙여놓는 것과 같은 사변》이라고 한 단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한 출로는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조국을 통일하자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전체 조선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는것 밖에 다른 출로는 없으며 전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고 하였다.

주제81(1992)년 2월초 설날에 있는 일이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김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조국통일도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은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고려민족으로서의 녀를 지니고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고려민족으로서의 녀!

민족의 녀에 대한 고귀한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참으로 온 겨레를 한 품에 안으시고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해 모든 정력을 강그리 바치시는 민족의 어버이만이 찾아줄수 있는 정신력이었다.

고려민족의 녀으로 단결해 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은 민족의 이질성을 떠들면서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분열세력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고 북과 남, 해외의 한결로 역세게 나아가도록 하는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우리일가의 소중한 추억



내희 아버지가 딸때문에 폐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길래 그런 말씀하시라고, 다 큰애들 밤이나 제때에 먹고 책가방을 싸주면 되겠는데 무슨 폐가 되겠는가고, 조금도 녀름말고 어서 보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다.

해방직후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빨찌산전우들은 물론이고 항일혁명렬사유가족들과 각계층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우리 시아버님을 비롯한 남조선의 정객들말고도 외국의 벗들도 있었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맥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많은 손님들을 친어머니, 만누이의 손길로 반가이 맞이하고 소박한 식사라도 늘 성의껏 대접하셨다. 녀사께서는 나의 시누이들이 외국에 류학할 때에는 철에 따르는 것

상공인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시어

1980년대 중엽에 이르러 변천된 새로운 력사적환경과 현실적조건은 총련사업을 그에 맞게 새롭게 개선해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 총련일군들도 토론하고 조국의 일군들도 안타까이 모색하였으나 어디서도 신통한 방책이 나서지 않았다.

가르치신바와 같이 재일동포 상공인들은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이라고, 이제는 총련이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떠나서 동포대중과의 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전진시킬수 없다고, 동포상공인들은 총련사업의 주되는 대상으로 되어

동포상공인들, 그들속에는 자기만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의 모든 일군들이 동포 상공인들을 자산 계급과 같이 보던 낡은 관점을 불사르고 그들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인 관점을 세우며 그들과의 사업에 1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는것이였다.

참으로 이것이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은 현시기 해외교포운동에서 강령적의를 가지는 탁월한 방침으로서 해외교포운동사상사에서 빛나는 기쁨으로 되었다.

본사기자